

민천주보

제2845호

2024년 9월 22일 |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경축 이동

발행 천주교 인천교구

발행인 정신철

편집 천주교 인천교구 홍보실

주소 22573 인천광역시 동구 박문로 1 이메일 hongbo@caincheon.or.kr



우리 본당 가족사진 <옥련동 성령 본당>, 1981년 설립

입당송 |

거룩한 순교자들을 공경하여 축제를 지내며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자. 천사들도 이날을 기뻐하며
하느님의 아드님을 찬양하네.

제1독서 | 지혜 3,1-9

회답송 | 시편 126(125),1-2ㄱㄴ.2ㄷㄹ-3.4-5.6(◎ 5)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
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
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
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겟 땅 시냇물처럼 되돌
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
리라. ◎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
하며 돌아오리라. ◎

제2독서 | 로마 8,31ㄴ-39

복음 환호송 | 1베드 4,14 참조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
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
리라. ◎

복음 | 루카 9,23-26

영성체송 | 마태 10,32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
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리라.

이주의 **녹색순교**

육류 줄이고 채식 늘리기



소리주보 QR

교우들은 보십시오

교우들은 보십시오. 하느님께서 아득한 태초로부터 천지만물을 지어 제자리에 놓으시고, 그중에 사람을 당신 모상과 같이 내어 세상에 두신 까닭[爲者]과 그 뜻을 생각해 봅시다.

(중략)

비록 주님 은총으로 세상에 태어나고, 주님의 은혜로 영세 입교하여 주님의 제자가 되니, 주님의 제자라는 이름도 또한 귀하겠지만 실천이 없다면 그 이름을 무엇에 쓰겠습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입교한 효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주님을 배반하고 그 은혜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주님의 은혜만 입고 주님께 죄를 짓는다면 어찌 태어나지 않은 것만 같겠습니까.

(중략)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알아들으시라. 우리 주 예수께서는 세상에 내려와 친히 무수한 고난을 받으시고 괴로운 가운데에서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고, 고난 중에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세상 풍속이 아무리 치고 싸운다 한들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중략)

부디 서로 우애를 잊지 말고 도우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히 여기시어 환난을 거두시기까지 기다립시다.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부디 삼가고 극진히 조심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爲主光榮], 조심을 배로 더하고 더해갑시다.

성 김대건 신부님이 남기신 편지의 대부분은 교구장이셨던 페레를 주교님과 은사 신부님들에게 보고서 형식으로 프랑스어와 라틴어로 써서 보낸 것들입니다. 이 편지들을 통해 당시 교회의 상황과 김대건 신부님의 영성 즉 신부님께서 가지셨던 사목적 열정, 당시 조선 사회에 대한 복음의 전파와 사회적 책임감, 더불어 신앙의 근본적 가치와 자아 성찰을 통한 신부님의 겸손함 등이 잘 드러난다고 합니다.

위의 내용은 신부님께서 옥중에서 신자들에게 보내신 한글로 쓴 마지막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신부님께서 이 편지에서 ‘비록 주님 은총으로 세상에 태어나고, 영세 입교하여 주님의 제자가 되니, 주님

의 제자라는 이름도 또한 귀하겠지만 실천이 없다면 그 이름을 무엇에 쓰겠습니까’ 하시며, 신앙생활에서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나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실천이 어려운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 과거와 지금은 그 원인이 다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박해와 같은 외적이 원인이 더 컸다면, 현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현재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나 교회 공동체의 차원에서든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그 가진 것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이 우리를 더욱 복음적이게 하지 못하는 원인은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해 봅시다.

또한 우리가 좀 더 복음적이기 위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시선이 교회 밖을 향해야 합니다. 요즘은 물리적인 거리로 교회와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직업, 여러 가지 상처,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교회로부터 멀어져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김대건 신부님께서는 옥에 갇혀 고문과 회유를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신자들의 신앙과 이제 막 태동하는 한국교회, 그리고 당시 조선의 상황만을 걱정하셨고, 좋아지고 개선되기를 바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신부님을 기억하면서, 단순한 기념이나 기억이 아닌, 우리 모두 그분의 영성과 가르침을 깨닫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민영환 토마스 모어 신부
교구 성직자국 국장

젊은이들의 기도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1사무 3,9): 하느님 뜻을 깨닫는 길

청소년기는 중요한 전환기입니다. 삶의 다른 측면들과 마찬가지로 신앙 여정에서도, 주님께 더 인격적이고 친밀하게 다가가는 법을 찾으면서 어느 시점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익혀 온 관행에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젊은이들과 기도의 관계는 민감한 주제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스럽게 또 용기 있게 동행하여 보면 많은 젊은이가 놀라울 정도로 큰 관심과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기도 여정에는 애정과 관계, 두려움과 바람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과 질문도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기도의 침묵과 내밀함은, 주님께 자신의 산란한 마음을 털어놓고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지를 마련하여 줄 수 있습니다. “주님과 친구가 되어 살아 계신 그리스도이신 그분께 여러분 삶의 현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시작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삶 전체를 지탱할 수 있는 심오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교황 권고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2019.3.25., 129항).

마지막으로,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기도 여정에서 성소에 관한 질문들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젊은 시절은 다른 이들을 위하여 봉사하면서도 그 무엇보다 자신의 미래를 내다보고 건설하는 때입니다. 젊은이들이 기도하도록 돕는다는 것은, 젊은이들이 주님을 자신과 떨어질 수 없는 동반자로 인식하면서 주님과 함께 꿈꾸고 주님과 함께 자신의 미래를 찾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젊은이들은 아브라함처럼 눈을 들어 별을 세는 법을 익힐 수 있고, 모세처럼 타서 없어지지 않는 떨기나무에 매료될 수 있으며, 사무엘처럼 한밤중에도 들을 수 있고, 마리아처럼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께 문을 열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해에 중요한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길을 따르는 기쁨으로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부르심에 관한 대화를 새롭게 복돋우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기도 행사와 만남

그리스도인 기도의 주제에 관한 유기적인 교리 교육을 위하여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4편을 유용하게 활용하거나 성경에 나오는 일부 인물의 기도들을 되새겨 보는 것 외에도,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를 깊이 있게 읽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150-157항, 250-252항 287-290항은 우정의 관점에서 주님과 맺는 관계를 젊은이들이 간단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 하루의 다양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젊은이들이 함께 기도하는 만남의 시간들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등교 전에 오늘 복음 읽기 또는 공동 아침 기도를 위한 모임 약속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매주 짧은 시간을 내어 성체 조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때 젊은

▶▶ 4면으로 이어집니다.

이들은 자신의 지향을 알리고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모두 서로의 지향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 젊은이들은 공동으로나 개인으로나 경험을 통하여 직접 보고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무엇보다도 기도 장소를 마련하거나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 센터나 기도실이나 회합실 한쪽 구석이나 소박하게 차려진 작은 경당에 성상과 성경을 비치하고 가능하다면 성체를 모셔서, 기도하기에 좋은 조용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광장이나 학교, 그 밖에 선교 활동이나 사목 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조성된 장소들이나 여름 수련회의 상황에서, 적절한 도구와 보조 자료가 비치된 ‘기도 천막’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강렬한’ 경험이 젊은이들에게 주는 매력을 고려하여 볼 때, 연중 특정 시기에 저녁이나 밤 시간을 활용하여 침묵, 경청, 흠숭에 전념할 수 있는 공간을 젊은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본당과 양성 단체들 안에서 ‘공동체 주간’ 체험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공부나 일을 계속하면서도, 청년 소모임들이 일부 사제나 수도자나 평신도 어른들과 함께 본당 자체나 교구에서 제공하는 공간들을 공유합니다. 형제적 생활과 봉사의 실천에 더하여, 이러한 경험은 새로운 세대들을 렉시오 디비나, 시간 전례, 성체 조배 등의 기도로 이끄는 훌륭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많은 신학교나 수도원이 ‘기도 학교’ 과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젊은 세대에 맞는 언어로 기도의 형태 안에 성경 인물이나 성소 주제에 대하여 단계별로 심화시켜 연구하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 주요 성지들을 도보 순례하거나 산이나 자연을 산책하는 것도 젊은이들 사이에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킵니다. 피조물을 관상하며 일정한 보폭으로 걷는 것은 마음을 쉽게 열어 경이로움과 찬미와 감사의 마음이 들게 하여 줍니다. 이는 또한 예를 들어 ‘마음 기도’를 가르치고 실천하거나 ‘순례의 노래’를 부르며 길을 함께 걷는 등 사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 청년 소모임들에게도, 저녁 기도나 묵주 기도보다 십자가의 길처럼 매달 첫 금요일에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전통적인 활동들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책무를 맡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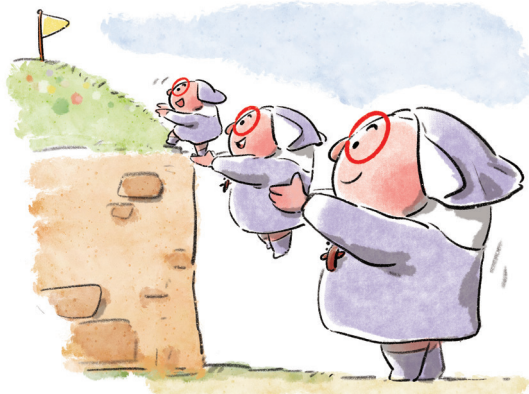
· 이제는 기도에 관한 양성 콘텐츠 또는 오늘의 복음에 대한 간략한 해설을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단들은 날마다 삶 안에서, 학교나 일터나 휴식처로 이동하는 도시의 일상 속에서 기도에 대하여 잠시 떠올릴 수 있게 하여 줍니다. 젊은이들의 의견을 통해서도 이러한 수단들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활용과 지식을 전파하는 것은, 여러 이유로 본당이나 다른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신자들이 기도에 전념하게 이끄는 실천 가능한 대안이 됩니다.

· 2025년 회년을 준비하는 2024년 ‘기도의 해’ 사목 자료
“저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교회 문헌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갈갈수녀님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 마르코 9:35

정오한



학교법인 인천가톨릭학원 하계 기관장 워크숍

교구 학교법인 인천가톨릭학원



8월 23일(금) 학교법인 인천가톨릭학원(=사무총장 윤만용 바오로 신부)의 주관으로 2024년 하계 기관장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학교법인 인천가톨릭학원, 인천가톨릭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가톨릭관동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마리스텔라의 기관장이 참석하여 기관별 2024년도 상반기 실적 및 성과를 보고하고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추진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교육부의 교육 정책 동향과 지역사회와의 동반 성장 전략 및 교육과 의료 기여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이사장 정신철 요한 세례자 주교의 경영방침 및 운영 철학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구 꾸르실로 '태암 레오관' 경당 축복식

교구 홍보기자 최옥희 안나

8월 24일(토) 답동 주교좌 성당 옛 교구청 사제관 터에서 교구장 정신철 요한 세례자 주교의 주례로 교구 꾸르실로 새 회관인 '태암 레오관' 경당 축복식이 거행되었다. 정 주교는 강론에서 "1948년 스페인에서 처음 꾸르실로가 시작할 당시는 신자와 성직자들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쇠신이 필요한 시대였다"며, "한국 교회 역시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어 "우리 꾸르실리스타(꾸르실로 수료자)도 힘을 내 하느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며, 한국 교회에 새롭게 신앙의 열정과 활력을 불어넣자"고 전하며 "그러기 위해선 낙담과 좌절에 빠지지 말고 서로 격려하며 영적으로 재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태암 레오관은 연면적 4909.86㎡·건축면적 1169.7㎡에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성숙한 신앙인을 양성하는 교육 공간으로 연수와 피정 등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미사 및 생태환경상 시상식

교구 홍보기자 장창규 루도비코



1일(주일) 창조시기의 시작일에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미사와 생태환경상 시상식이 열렸다. 미사는 오병수 스테파노 신부(=교구 사회사목국장 생태환경사목 전담)의 집전으로 각 본당 생태환경분과 위원들과 하늘땅물벗 벗님 80여 명이 모여 '창조세계와 함께 희망하고 행동하기'를 주제로 감사와 봉헌의 축제 분위기 속에 봉헌되었다. 각 본당의 '공동의 집' 지구를 위한 노력과 결실을 봉헌하는 입당행렬과 참회, 보편지향기도, 영성체 후 묵상 등 에큐메니컬 기도문과 주교회의의 기도문을 활용하여 피조물을 기억하고 창조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풍부한 전례가 이루어졌다. 이어 교구 생태환경활동상 시상식에서

대상은 영종 본당 생태환경분과와 13개 하늘땅물벗, 우수상은 마산동 나무늘벗과 중3동 사회평화분과, 장려상은 작전2동 거북이벗과 장기동 별새벗에게 수여되었다. 미사 후 수상 본당들의 사례 발표를 통해 많은 참석자가 각 벗의 수고에 감탄하였고 새로운 아이디어들도 많이 얻으며, 서로 공감하고 축하하는 자리가 되었다.

(재)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희망디딤돌' MOU 체결

교구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2일(월) (재)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이사장 이용권 베드로 신부)은 삼성과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희망디딤돌 인천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희망디딤돌 센터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공간과 교육 등을 제공하는 삼성의 사회공헌활동으로, '희망디딤돌 인천센터'를 2024년부터 재단에서 위탁받아 운영한다. 이사장 이용권 신부는 "보호의 끝에서 느끼는 막막함과 불안감에서 자립이 시작되는 도전과 희망으로의 변화를 함께 이끌어주셔서 감사하다"며 "물 한 방울에 새싹이 돋아나듯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많은 분들의 작은 관심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하였다. 희망디딤돌은 2016년 부산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내년 1월 인천센터까지 개소하면 전국에 13곳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 주에 기억해야 할 선종사제

홍창만 루카 신부 2017.09.25 선종



교구청

교구청 사무처 직원 모집

대상: 계약직 1명(정규직 전환 예정)
업무: 문서관리, 교회 행정업무 가능자
제출 마감: 10/2(수) 제출서류 교구 홈페이지 참조
제출처: samoo@caincheon.or.kr
문의: 032-765-6961

지구를 위한 미사와 환경특강

일시: 9/25(수) 10:00 주안1동 성당
문의: 032-765-7255 생태환경사목부

17차 가톨릭 약혼자 주말

일시: 11/15(금) 20:30~17(주일) 16:00
장소: 심조이 바르바라 피정의 집
대상: 예비(신혼)부부, 사제, 수도자
문의: 032-762-8888 가정생명사목부

교육 | 미사

가정회복 은혜의 낮피정(고해성사, 상담)

일시: 9/23(월) 13:00~16:30(말씀, 찬양)
장소: 정동프란치스코회관(1, 2호선 시청역)
문의: 010-7282-2422, 010-5245-0121

토아울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일시: 매주(화) 12:30~16:00
장소: 명동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종국 신부
강사: 9/24 이상기 회장, 10/1 김종국 신부
문의: 010-5514-4077 회장

ICPE Jesus시그널피정 5차

일시: 10/25 저녁~27 합정동 마리스타 교육관
대상: 가톨릭 미혼 청년 만 28~39세
문의: 010-5320-0419(ICPE카톡 플친)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섬과 성지순례, 제주여행과 자연순례(연중피정 접수 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자연순례: 10/14~16, 23~25, 11/1~3, 7~9, 21~23, 12/1~3, 6~8, 29~25/1/1(연말연시)
추자도 포함: 10/5~8, 27~30, 11/16~19
문의: 064-796-4182, 02-773-1455(제주자연피정)

성모솔숲 무료 치유대(對)피정

·값없이 먹고 자고 원 없이 기도하자:
매월 둘째주(금~주일) [2박 3일]
·청년 무료 치유대(對)피정: 12/13 18:00~15
문의: 010-3209-3955 (문자접수)

9월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일시: 9/24(화) 14:00
장소: 도화동 성당

교구 가톨릭남성합창단 제101회 성음악미사

일시: 9/29 18:00 구월1동 성당
문의: 010-2040-7977 강신우 프란치스코

미래사목연구소 후원회 미사

일시: 9/24(화) 11:00 미래사목연구소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34)
문의: 031-986-7141

가톨릭문화원 상설 음악피정미사, 무료 콘서트

일시: 매주(주일, 목) 14:00 가톨릭문화원 아트센터
(김포시 하성면 월하로 970-18)
버스 운행: 13:30
장지역 3번 출구 버스정류장 옆 공영주차장
문의: 1577-3217

푸른꿈, 제주섬 이야기(생태피정)

강우일 주교의 제주이야기, 성지순례, 자연순례
일시: 10/2~4, 25~27, 11/1~3, 15~17
장소: 성 이시돌 피정의 집(한통사)
대상: 개인, 단체(본당 사목위원, 구반장 환영)
문의: 010-9670-9775, 010-2231-2074

모 집 | 일반

이승훈 베드로 성지 '기도의 벽', '추모의 벽' 신청

성지 성전에 지향사 성명 각인 1인당~1백만원
10년 동안 매달 1회 미사봉헌
문의: 032-765-6916 인천교구 성지위원회

교구 운영 하늘의 문 성당 "봉안당" 접수

위치: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묘지 내
준공: 2025년 상반기 준공(예정)
접수: 인천교구청(송림동) 방문 및 온라인 위치 선정
서류: 교적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 60년(30년, 추가 30년 가능)
봉헌금: 4백만원, 5백만원
접수: 032-765-7251
<http://haneul.caincheon.or.kr>

25학년도 중등 신규교사 채용계획 공고

기간: 9/13(금)~10/18(금)
전형일정: 각 기관 홈페이지 참조
·교육재단 소속 학교 홈페이지: 인천대건고, 박문여고, 박문중, 소명여고, 소명여중
·인천, 경기도교육청
주관: 학교법인 인천가톨릭교육재단
문의: 032-766-6985, 6986

온수 성당 성가대 유급 지휘자 모집

서류: 이력서
문의: 032-937-7922, 010-5389-4467

노틀담복지관 두루미 봉사자 모집

장애인가정 정서지원(말벗, 산책 등) 봉사활동
장소: 계양구 내 장애인가정
문의: 010-4458-8931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임양원

국내임양상담 www.holyfcac.or.kr
문의: 02-764-4741~3

꼬메심리상담소(도미니코수도회)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성장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뜻한 동행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 [주 1회]
문의: 010-3201-0520 상담자 노경덕 신부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 전문병원, 중독중점 입원 및 외래 통원치료(도박, 인터넷 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일시: (월~금) 9:00~17:00
장소: 고양시 백석역(3호선)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

글라셋선교수도회 심리상담

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가족관계, 직장 및 학교 부적응, 이주민 자녀 진로상담
대상: 개인, 부부, 가족, 청소년
상담료: 1회~1만원
장소: 부천시 심곡본동 608-7
문의: 010-7794-6031

솔샘나우리센터(심리정서치료)

놀이, 모래놀이, 치료놀이, 언어치료, 감각통합치료
대상: 아동, 청소년
운영: 살트르성바오로수녀회
문의: 032-872-2731, www.solsam.or.kr

가톨릭여성심리상담소

심리, 가족갈등 전화상담
일시: (월~금) 10:00~16:00
문의: 02-990-9366

해외 가톨릭 사립학교 학생 모집

대상: 초5~고2, 미국, 아일랜드, 단기 가능
그리스도 레지오회 해외학교법인
문의: 02-2258-8983, oakinternational.co.kr

예비자 통신교리(우편, 사이버, 신자재교육)

주소: 서울 중앙우체국 사서함 5234호
요금: 1만원 /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문의: 02-2274-1843~4, www.cdcc.co.kr

25학년도 전기 교회음악대학원 신입생 모집

석사과정(5학기): 오르간, 작곡(CCM작곡포함), 합창지휘
석사학위 및 가톨릭교회 인준의
고급교회음악가자격증 수여
원서접수: 10/14(월)~25(금)
전형일: 11/15(금)
장소: 최양업홀(충정로역, 서울역 하차)
문의: 02-740-9704
<http://songsin.catholic.ac.kr/music>

단기 선교아카데미 교육생 모집(온라인)

일시: 11/4~14(월~목) 19:00~21:00
대상: 해외선교 및 선교에 관심이 있는 평신도,
사제, 수도자
진행: 실시간 온라인 교육 (비용-10만원)
문의: 02-3673-2528 한국외방선교회

성가 발성 노래 교실

다 함께 성가를 TV 이호중 교수 직강
일시: 매주(목) 18:30 답동 주교좌 성당
문의: 010-9842-8818

예수성심 강화·김포 친교회 회원 모집

대상: 만 65세 이하 교우
문의: 010-5245-9300

수도원 재건축을 위한 도움 요청

익산 성클라라봉쇄수도원은 재건축이 불가피하여
수도원을 철거했고, 곧 공사가 시작됩니다.
도움을 검손되어 청합니다.
후원문의: 010-6680-0692

순례 | 기타

해외 성지순례

·[1차] 10/8 출발, [2차] 12/10 출발:
라방, 짝깨우 성모발현성지 [5일]
·12/2 출발: 성 김대건성지 롤롬보이,
마나오그 성모발현성지 [5일]
문의: 010-5909-5997

전국167, 제주3박4일, 베트남, 일본, 마카오 성지순례

매월 출발, 35만원 / 120만원
문의: 010-4239-1929

일본 성지순례 3박 4일

가고시마, 북해도, 아키타, 나가사키,
도쿄, 오사카 120만원 [3박 4일]
문의: 010-3645-9028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10/22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0만원
12/3 베트남 다낭 성모성지 [5일] 145만원
25/1/14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0만원
문의: 02-722-8366

해외 성지순례

11/11 나가사키 [4일]
25/1/6 멕시코(과달루페, 칸쿤)성지순례 [10일]
(동반자 100만원 할인)
11/18 튀르키예, 그리스 [11일]
25/1/17, 2/14, 3/14 시칠리아 몰타 [10일]
25/1/15, 2/11, 3/11 포르투갈 파티마 일주 [9일]
문의: 02-778-8565

해외 성지순례

10/20 서유럽 성모발현지 순례 [11일] 465만원
10/28 일본 고토 순례 [5일] 198만원
11/4 중국 상해 성지순례 [4일] 109만원
12/18 남인도 순례, 문화탐방 [13일] 595만원
문의: 02-732-4578, www.bonatour.co.kr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11/26 발칸반도(메주고리예) [12일] 395만원
12/2 동부 유럽 4개국 [11일] 385만원
12/9 스페인, 파티마, 루르드 [12일] 450만원
문의: 02-2281-9070, www.cttour.org

제주, 해외, 한국성지167 성지순례

10/17 베트남 다낭 [5일]
10/28 베트남 나트랑·달랏 [5일]
11/2 홍콩, 마카오 [4일]
25/2/6 스페인, 포르투갈 [12일]
(인천 출발) 한국성지167 35만원, 제주 39만원부터
문의: 010-8650-9690, www.michaeltour.co.kr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연수원) 운영

대천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피점, 매일미사,
대전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 가능
인근 성지: 갈매못 순교성지, 서짓골 성지,
청양 다락골 성지
인터넷 검색창에 '요나성당 연수원' 검색
문의: 041-934-7758
<https://yonaresort.modoo.net/>

성소모임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일시: 9/28(토) 14:00(그 외는 전화)
장소: 서울 보문동 수녀원
대상: 선교와 수도생활에 관심있는 미혼 여성
문의: 010-9353-1773(미리연락)

2024년 제3회 바다의 별 문화예술축제
“꿈, 희망 그리고 미래의 길” 합창제

이승훈 베드로 역사공원 개장 기념

천주교 인천교구 12개 관할지구를 대표하는 합창단을 구성하여 “꿈, 희망, 그리고 미래의 길”을 향한 합창경연대회를 개최하오니, 신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관람 바랍니다.

9/28(토) 15:45 이승훈 베드로 성지기념관

15:45 식전행사(아이언혼밴드)
16:00 1부 경연(7팀-서구, 연수, 김포, 부평, 계양, 강화, 시흥·안산 지구)
17:25 초청공연(테너_임웅균 교수)
17:40 2부 경연(4팀-부천2, 중·동, 미추홀, 남동 지구)
18:20 축하공연 및 시상식(인천가톨릭합창단)

2024년 제3회 바다의 별 문화예술축제

이승훈 베드로 역사공원 개장 기념
기쁨을 천 水上地樂
날 뿐만이 아니라 바다와 함께 노래
를 즐기며 인생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꿈, 희망,
그리고 미래의 길

2024. 9.28.(토) 16:00
이승훈 베드로 성지기념관

식전행사	15:45~
· 아이언혼밴드	
1부 경연	16:00~
· 7팀 합창 경연 (서구지구, 연수지구, 김포지구, 부평지구, 계양지구, 강화지구, 시흥·안산지구)	
초청공연	17:25~
· 테너 임웅균 교수	
2부 경연	17:40~
· 4팀 합창 경연 (부천2지구, 중·동지구, 미추홀지구, 남동지구)	
축하공연 및 시상식	18:20~
· 인천가톨릭합창단	

{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이승훈 682-24 · 주최: 인천해동관 제3주제(연수·연수)
· 배스: 송내역 1번 출구 103-1번 배스 남동구청 차차 }
주최: 인천교구 천주교인천교구 주관: 인천가톨릭합창단 후원: 인천가톨릭합창단